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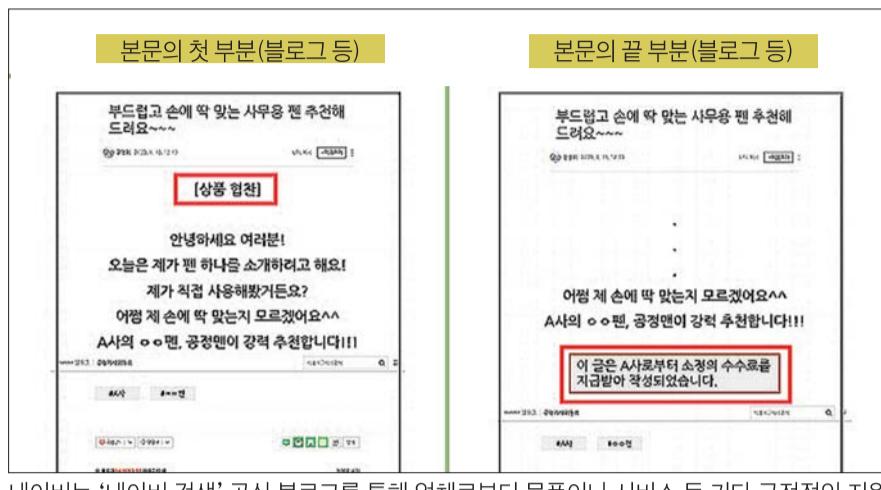
판 치는 뒷광고에 칼 빼든 네이버… “블로그 검색노출 제한”

‘대가성 표기’ 가이드라인 강화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도 해당
신고·모니터링 등으로 감독
위반글 삭제해도 검색서 제재

네이버가 블로그등 콘텐츠 플랫폼에
서 뒷광고를 한 게시물에 대해 통합검
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재
를 가하며 뒷광고 근절에 나선다.

온라인 공간 속 수많은 콘텐츠가 늘
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은 끊이지 않
는 상황이다. 뒷광고는 콘텐츠 제작자
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시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콘텐츠를 제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 등 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에 연한 회색으로 ‘이 글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 받았습니다’라고 써둔 경우다.

또 네이버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경우 원고료 등의 금전적 지원을 직접 받은 경우에만 표기를 하고, 음식점에서 식음료 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의 경우, 블로그 운영상 불이익이 없다며 여러 블로거들을 설득해 광고를 하는데 이들 블로그에는 유사한 이미지와 평가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 모니터링, 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합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으

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원고를 등록 후 일정 시간 이 흐른 다음 삭제를 진행하더라도 검색 노출에 대한 제한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블로거가 있어 전체적인 공지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제재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의 ‘운영정책’에 올라와 있다.

약 2000명의 블로그 이웃을 보유한 블로거 A씨는 “네이버로부터 광고 표시 정책에 대한 알림이나 메일 등이 오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통합검색 여부가 조회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런 공지사항은 블로그 첫화면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SK종합화학, 中企 상생 위해 ‘통 큰 지원’

임금격차 해소 등 위해 협약 체결
735억 규모 상생 프로그램 운영

SK이노베이션의 화학사업 자회사 SK
종합화학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 중소기업들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종합화학은 협력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735억 원 규모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SK종합화학은 코로나19로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술개발 투자와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모범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SK종합화학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본급 1%와 회사가 매칭펀드로 조성한 기금으로 협력사 임금을 지원하는 등 임금 격차해소 협약의 취지를 잘 살릴 것을



지난 16일 SK종합화학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왼쪽부터)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주)삼구INC 손유성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종합화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대금 지급과 관련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현금지급 등 이른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 채용박람회 개최 및 직무교육, 해외진출, 창업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 자체적으로 만든 상생기금을 이용해 급여를 지원하고 SK정비동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 ▲ 우수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 동반성장펀드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안정금융’ 등 지원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이 이처럼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은 ESG(환경, 사회

책임, 지배구조) 경영 강화차원이다. ESG는 기업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일컫는다. 최근 글로벌 경영의 화두이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전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SK종합화학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 시험에 성공하고,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상생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더욱 크게 창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 벨벳 UI, 실속형폰에서도 사용하세요”

연내 벨벳 UI 업데이트 진행키로

LG전자 스마트폰(사진)이 벨벳 UI를 물려받는다.

LG전자는 올 연말까지 실속형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벨벳 UI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Q51과 Q61, V35 씽큐

등이다. Q70 등 7개 제품이 이미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볼륨 조정화면 변경 ▲알림바 포인트 색상 설정 ▲통화 알림창 모양 변경 등으로 편의성을 크게 제고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고객들에 호평을 받은 벨벳 UI를 다른 스마트폰에도 적용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



리미엄 스마트폰 UI를 통해 제품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웅 기자

식탁·발코니서 강력 화력 “가스보다 낫네”

꼼꼼 IT 리뷰

삼성 인덕션 ‘더 플레이트’

휴대, 주방거치 모두 가능
가스레인지보다 화력 우수
간편 물세척 등 관리·보관 편해

인덕션은 가스레인지 단점을 모두 해결해낸 대표적인 신가전이다. 높은 화력과 심플한 디자인, 안전까지 모두 소화해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더 플레이트는 인덕션의 장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성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휴대성까지 높여서 220V 전원선만 꽂을 수 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했다. 1인가구와 캠핑족, 일반 가정 주방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 써본 제품은 2구 모델이다. 지난 달 말 처음 출시됐으며, 휴대용만 아니라 주방 거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높은 스펙을 자랑한다.

최대 장점은 화력이었다. 일반 주방용 인덕션과 같은 3300W다. 각각 화력을 9단계로 쓸 수 있고, 파워 부스트 모드도 지원한다. 파워 부스트 작동시 반대쪽 화구는 6단까지만 작동한다.

같은 용기, 같은 환경에서 1L 물을 끓여봤다. 더 플레이트에서는 완전히 끓는데까지 4분 30초 정도가 걸렸다. 반면 가스레인지에서는 최고 화력으로도 5분 30초 정도나 걸렸다. 더 플레이트는 미세먼지와 냄새도 거의 없었고, 소음도 적었다.

크기는 전천후로 사용하기 좋은 수준이다. 우선 너비가 597mm로 일반 가스레인지와 비슷해 주방에 꼭 맞게 넣을 수 있다. 그러면서 두께는 46mm에 불과해 필요에 따라 식탁이나 발코니 등으로 옮겨 사용하거나 적재하기에도 간편하다.

전용 용기는 프라이팬을 자주 쓰는 사용자에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다. 인덕션 위에 올리는 대형 팬 형태로, 양쪽 화구를 켜고 끄는데 따라 사용 범위를 선



(두번째) 더 플레이트에 물 1L를 끓인지 약 2분 정도 지난 모습. 가스레인지에서보다 더 빨리 음식을 조리할 수 있었다.

(세번째) 더 플레이트와 전용 용기로 고기를 굽는 모습. 6정도 세기만으로도 음식을 굽거나 튀기기 충분했다.

택 가능하다. 더 플레이트에 완벽하게 달라붙어 디자인도 통일된다. 다 쓰고나면 기름을 닦아내고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된다. 물세척이 필요하면 단순한 형태 덕분에 싱크대에서 설겆이하기도 쉽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많은 가정에서는 더 플레이트와 전용 용기 조합이 크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전기팬보다는 더 플레이트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다, 화력도 높고 안전하다.

가격도 알려진 것보다는 높지 않다. 공식몰에서는 44만원이지만, 오픈마켓 판매 가격은 20만원 중후반대에 불과하다. 전용 용기까지 합해도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2구 모델 크기가 자유롭게 휴대하기에 다소 크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다. 1구 모델은 훨씬 작긴 한데, 화력이 2000W로 다소 약하다./김재웅 기자 juk@